Ⅲ Ⅱ. 2010학년도 1차 시험 해설

언어 영역

1. ①	2. ②	3. ④	4. ④	5. ②
6. ①	7. ①	8. ④	9. ①	10. ④
11. ③	12. ④	13. ④	14. ③	15. ②
16. ③	17. ④	18. ③	19. ③	20. ③
21. ⑤	22. ③	23. ⑤	24. ③	25. ④
26. ⑤	27. ②	28. ②	29. ①	30. ①
31. ②	32. ②	33. ⑤	34. ①	35. ④
36. ①	37. ⑤	38. ⑤	39. ②	40. ①
41. ②	42. ③	43. ⑤	44. ⑤	45. ①
46. ②	47. ③	48. ⑤	49. ⑤	50. ⑤

1.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해 — 정답 ①

①은 어법 측면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고,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문장에 해당한다.

② '작년부터'와 '시작한다'의 시간 표현이 호응하지 않으므로, 서술어 '시작한다'를 과거형인 '시작했다'로 고쳐야 한다.

③ 주어에 해당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과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용되어야 한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로 고쳐야 한다.

④ 서술어에 해당하는 '받지 못하고 있다'의 대상으로 '차별'과 '합당한 대우'가 제시되어 있는데, '차별'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이라는 말 뒤에는 서술어 '당하고(받고)'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⑤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의 주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매우' 앞에 주어에 해당하는 '한글이'를 넣어야 한다.

2. 사이시옷 규칙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 정답 ②

〈보기〉에서 제시한 사이시옷 규정은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2)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다. 선택지의 말들 중 〈보기〉의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끼리 묶인 것은 ②의 '바닷가'와 '맷돌'이다.

'바닷가'는 순 우리말 '바다'와 가장자리를 뜻하는 순 우리말 '가'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해당하며, [바다까]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사용한 것이다. '맷돌'도 순 우리말 '매'와 순 우리말 '돌'이 결합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해당하며, [매똘]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사용한 것이다.

① '냇물'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아니다.

③ '콧병'의 경우 '병(病)'은 한자어이므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샛강'의 경우 '강(江)'은 한자어이므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곳간(庫間)'은 '한자어 + 한자어'이므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어법과 관련된 정확한 표현의 이해 — 정답 ④

㉣에서 보조사 '-는'은 체언 외에도 동사, 형용사, 부사 뒤나 일부 연결 어미 뒤에도 올 수 있다. '너머'는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여)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시월도' 지나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 상황에서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의 의미를 지닌 '넘다'의 활용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의 문맥적 상황에서는 '너머는'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넘어는'이라는 말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③ '일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찌 되어 있다'를 뜻하는 형용사 '어떻다'의 부사형은 '어떡해'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어떡해'는 '어떠하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어떡하다'의 활용형으로, '그럼 난 어떡해.' 등의 상황에 쓰인다.

⑤ '되어', '되어라', '되었다'에서 '되-'와 '-어'가 결합하여 줄면 '돼-'가 되어 각각 '돼', '돼라', '됐다'가 된다. 하지만 '되-'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돼-'로 줄지 않으므로, 은 '되지'로 표기해야 한다.

4. 로마자 표기법 규정의 이해와 적용 — 정답 ④

'집현전'은 〈보기〉 제1항-4에서 'ㅂ'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의 '집현전'의 경우 '집'의 'ㅂ' 뒤에 '현'의 'ㅎ'이 따르므로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Jiphyeonjeon'이다.

① 체언에서 'ㄱ' 뒤에 따르는 'ㅎ'을 밝혀 적었으므로, 제1항-4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한 것이다.

② [붙임]에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표기에 해당한다.

③ '왕십리'는 [왕심리]로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제1항-1를 반영한 표기에 해당한다.

⑤ '학여울'은 [항녀울]로 'ㄴ'이 덧나는 경우이므로, 제1항-2를 반영한 표기에 해당한다.

5. 높임 표현의 유형 및 쓰임에 대한 이해 — 정답 ②

㉡에서 '있으시다'는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말씀 등과 관련된 것들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에 해당한다. 높여야 할 '교장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에 대해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있으시다'를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해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용언 '오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행위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③ '-게'는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무엇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즉, '-게'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대화의 청자인 상대를 낮추고 있는 상대 높임법에 해당한다.
④ '여쭙다'라는 특수한 동사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주격 조사인 '-께서'에 의해 행위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6.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른 쓰임 이해 정답 ①

①의 문장에 사용된 '부치다'는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부치다[2]'의 여섯 가지 사전적 뜻풀이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②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③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④ '마음이나 정 따위를 다른 것에 의지하여 대신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⑤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7. 글다듬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①

㉠의 '졸다'는 '잠을 자려고 하지 않으나 저절로 잠이 드는 상태로 자꾸 접어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문맥상 '자신다'로 고치기보다는 '조신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로, 문맥적 상황이 할머니가 잠을 자는 상황일 경우에도 '자신다'보다는 '주무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용돈 만 원을' 넣어 둔 장소에 해당하는 말인 '주머니에'를 첨가하면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⑤ '웬'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웬지'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에는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의미를 지닌 부사 '왠지' 혹은 '왜인지'를 써야 한다.

8. 파생어에 쓰인 접두사 '막-'의 의미 이해 정답 ④

'막되다'는 동사 '되다'에 접두사 '막-' 이 붙은 파생어이다. 여기에 결합된 '막-'은 '주저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막-[7] 2'에 해당한다. 따라서 '막되다'의 '막-'을 '마지막'을 뜻하는 '막-[8]'로 파악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9. 개요에 따른 구체화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①은 '본론'의 항목 중 '3. 교통 체증의 완화 방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본론-3'의 하위 항목인 (1), (2), (3)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①은 〈보기〉 개요의 '본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② '본론-3-(1)'의 '제도 보완을 통한 교통량의 감소 유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③ '본론-1-(1)'의 '에너지의 낭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④ '본론-2-(3)'의 '운전자의 잘못된 의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⑤ '본론-3-(2)'의 '교통 신호 체계의 개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10. 조건을 충족하는 창의적 표현 이해 정답 ④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첫째 문장 '오늘도 풍부하다고 내일도 풍부할까요?'에서 대구 표현을 사용하여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둘째 문장에서 '~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 물을 절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①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완곡한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 물을 절약합시다.'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대구의 표현이 없으며, 완곡한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⑤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1~14] 지문 해제

조선 시대 궁궐의 구조와 기능

조선 시대 궁궐의 구조를 각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그 쓰임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조선 시대 궁궐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전은 왕의 공간인 대전과 왕비의 공간인 중궁전으로 이루어진다. 외전은 왕의 공식적인 행사 공간으로, 외전의 중심인 정전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회랑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넓은 마당이 조정이다. 동궁은 왕세자의 활동 공간이며, 생활주거 공간은 왕실 가족과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후원은 휴식 공간이며, 궐내각사는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이고, 궐외각사는 궁궐 밖에 설치된 국가의 핵심 관서이다.

11. 글의 중심 내용 이해 정답 ③

이 글은 첫째 문단에서 궁궐의 여러 구역에 대해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문단 이후에서는 첫째 문단에서 언급한 궁궐의 각 구역과 관련하여 그 쓰임새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궁궐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물음으로는 '궁궐은 어떻게 짜여 있고 그 쓸모는 무엇이었는가(③)'가 가장 적절하다.

12. 진술 방식의 이해와 구체적 적용 정답 ④

이 글은 조선 시대 궁궐의 구조를 내전, 외전, 동궁, 생활주거 공간, 후원, 궐내각사, 궐외각사 등으로 구분한 다음,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악을 정악과 민속악으로 구분한 다음, 그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에는 인과의 방식이, ②에는 정의의 방식이, ③에는 묘사의 방식이, ⑤에는 유추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13. 정보의 이해와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은 위치상 내전의 뒤편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생활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은 궁궐의 북쪽 산자락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제시된 건물들의 명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접근할 때, 나머지 ㉢은 궁궐 안에 설치된 관서들인 '궐내각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④이다.

14. 주변 의미가 확대된 단어의 이해 정답 ③

넷째 문단에서, '동궁'은 왕세자가 활동하는 공간의 이름이지만, 왕세자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의 '동궁'은 왕세자의 활동 공간이라는 원래 의미에서, 왕세자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주변 의미가 파생된 말에 해당하므로 의미 확대에 부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5~19] 작품 해제

(가) 김소월, 『가는 길』

임의 곁을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1, 2연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아쉬움에 떠나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 방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3, 4연에서는 까마귀와 강물 등의 외적 상황 묘사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나) 박재삼, 『추억에서』

시적 화자의 어린 시절, 즉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가난하고 한스러운 삶을 회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면서도, 그 속에 녹아 있는 한과 슬픔의 정서를 섬세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표현상 특징을 보면, '울 엄매야 울 엄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오명 가명' 등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 운율을 살리면서 시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주제 : 유년기의 기억 속에 각인된 어머니의 삶과 한

(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편지 형식으로 쓴 작품이다. 전반부에서는 대상과 헤어져 겪는 애절한 아픔을 보여 주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라는 시구를 통해 슬픔의 심정을 기다림과 희망의 자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 주제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를 소망하는 기다림

15.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 이해 정답 ②

(가)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상에 대해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라며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시적 화자는 어린 시절 장사를 하던 어머니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으며, (다)의 시적 화자는 그대와 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가)~(다)에 드러난 화자의 공통된 태도로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16. 작품들의 특징 이해 및 차이 분석 정답 ③

(가)는 절제된 시어라기보다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어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① (가)에서는 제1, 2연에서는 1음보를 한 행으로, 제3, 4연에서는 3음보를 1행으로 처리하는 등 음보 배열의 변화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에서는 '울 엄매야 울 엄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오명 가명' 등에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제1, 2연에서 내면 심리를, 제3, 4연에서 외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의 경우는 저녁 무렵부터 새벽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나)는 어린 시절의 가난했던 삶을 회상하는 어조로 되어 있으며, (다)는 그대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잔잔하고 담담하게 노래하는 어조로 되어 있다.

⑤ (나)는 '-ㄴ가', '-ㄹ꼬' 형태의 의문형 종결 어미를, (다)는 '-습니다' 형태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17. 시구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이해 정답 ④

㉠, ㉡, ㉣은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나 한과 연결되는 시어이다. 그리고 ㉢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떨던 오누이(남매)의 가난한 삶과 연결되는 시어이다. 따라서 ㉠, ㉡, ㉢, ㉣은 공통적으로 가난으로 인한 고

단한 삶이나 한과 관련이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진주 남강의 맑은 물결과 관련이 있는 시어로, 시적 화자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가난한 삶이나 한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르다.

18. 자료를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이해 정답 ③

〈보기〉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고 그 감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물이나 사건 등을 통해 객관화하여 표현할 때 사용되는 사물이나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의 '까마귀'와 '강물'은 화자에게 해가 진다고 지저귀거나 어서 따라 가자고 재촉하는 사물이고, (다)의 '빈 길'과 '저무는 섬'은 화자의 외로움을 극대화시키는 공간(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을 감안할 때, ㉠, ㉡, ㉢, ㉤의 시어는 모두 화자의 감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객관화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 '진주 장터'는 과거에 어머니가 일했던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킬 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보기는 어렵다.

19. 시어의 공통적인 의미 이해 정답 ③

(나)에서 '별'은 늦은 밤까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어라는 점에서 소망이나 희망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별'은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소망이나 희망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와 (다)의 '별'이 지니는 공통적인 의미로는 ③의 '소망과 희망의 세계를 표상'이 가장 적절하다.

[20~23] 지문 해제

홉스 이론에 나타난 근대 윤리학의 특성

홉스가 규정하는 인간관과 국가의 관계를 통해서 홉스 이론의 근대적 의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홉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의 비참함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여 국가라는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홉스는 이기적 인간들이 자기 통제보다는 이기적 욕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에 의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홉스의 이기주의 윤리학은 기존 질서가 붕괴된 혼란 상태에서 자기 통제 능력을 근거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근대적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 중심 화제와 관련된 정보의 이해 정답 ③

다섯째와 여섯째 문단에서 보면, 새로운 질서와 체계의 수립에서 자기 통제 또는 자기 지배 능력이 중요한 계기로 등장하지만, 홉스는 인간의 자기 통제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홉스는 이기적 인간들이 자기 통제보다는 이기적 욕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홉스가 규정한 인간관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인간은 사회적 공동선이 아닌,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②, ⑤ 인간은 외부 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형성한다.

④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선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과 악을 규정한다.

21. 구체적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⑤

이 글에 의하면 이기적 개인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 이유는 전쟁 등의 상태에서 닥칠지 모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또한 셋째 문단에,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 자연 상태의 비참함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죽음보다는 낫다는 정보가 드러나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도 불사한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 ④ 여섯째 문단에서, 계약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권력인 국가는 새로운 질서의 궁극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에 의한 처벌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②, ③ 셋째 문단에서, 국가는 신과 같은 존재자이며, 국민은 이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자연 상태의 혼란과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관점의 이해 및 관련 내용의 적용 정답 ③

ⓐ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상대방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ㄴ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 늑대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와 ㄴ은 인간을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

ⓑ는 국가의 통치권 같은 절대 권력이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자연 상태의 비참함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죽음보다는 낫다는 관점이다. ㄷ은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보다는 최악이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볼 때, ⓑ와 ㄷ은 자연 상태보다는 국가나 정부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

23. 관점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모습 추론 정답 ⑤

㉠에서 홉스가 내세운 이기적 개인은 이전의 권위나 질서, 외부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와 질서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근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는 당시의 도덕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암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을 통해 홉스의 모습을 추론해 본다면, 도덕적 혼란 상황에서 방황하는 근대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혁기에 고민하는 홉스(⑤)'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4~26] 지문 해제

환경에 따라 음상이 달라지는 교체와 형태소의 이형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音相)이 달라지는 현상인 교체(交替)와, 이러한 교체에 의한 이종(異種)들인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글이다.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한다.

24.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구체적 적용 정답 ③

③에서 '뛰다'의 '뛰-'와 '달리다'의 '달리-'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뛰-'와 '달리-'는 한 형태소에서 나온 이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소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① 둘째 문단에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과 관련하여 A는 환경 X에만 출현하고 B는 환경 X에는 절대 출현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② 첫째 문단에서,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 단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나무, 어머니, 고기, 고래, 구름, 하늘'은 의미를 지닌 최소의 단위이므로 각각이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④ '웃다'의 '웃-'은 '웃고, 웃어라, 웃는다' 등에서 '웃-'의 발음이 [욷, 우(ㅅ), 운]으로 달리 나타나므로,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이 달라지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⑤ '강'은 '강이, 강도, 강만' 등과 같이 모두 [강-]으로 나타나므로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이 달라지는 교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25.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적용 정답 ④

'값이, 값도, 값만'은 [갑씨, 갑또, 감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 ㉡, ㉢에는 각각 '갑(ㅅ)', '갑', '감'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시된 선택지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굳이 선택지에서 찾는다면 '값, 갑, 감'으로 제시된 ④일 것이다.

26. 정보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⑤

⑤에서 '-에게'와 '-한테'는 서로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두 문장에서 '-에게'와 '-한테'를 바꾸어 쓰더라도 의미가 통하므로 '-에게'와 '-한테'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에게'와 '-한테'는 한 형태소의 이형태로 볼 수 없다.

[27~31] 작품 해제

박지원, 『광문자전(廣文者傳)』

착한 마음씨를 가진 광문의 행적을 통해 당대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작자는 신분은 보잘것없지만 인정이 많고 성실하며, 신의가 있고 허욕을 부리지 않는 광문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당시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사실주의적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 갈래 : 한문 소설, 풍자 소설
- 성격 : 풍자적, 비판적, 사실주의적
- 주제 : 당대의 세태 및 양반들에 대한 비판

27. 소설의 특성 및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작품은 광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광문과 관련된 일화들을 바탕으로 그의 인물됨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는 '구체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28. 인물의 면모 및 성격 파악 정답 ②

광문이 병든 거지 아이를 위해 밥을 빌어 오고, 죽은 아이를 묻어 주는 행동을 통해 그가 인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③). 싸움판에서 광문이 땅에 금을 그어 옳고 그름을 판정하여 싸우던 사람을 웃게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는 재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④). 그리고 장가를 가라는 사람들의 권유에 자신의 용모를 들어 거절하는 모습에서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다(①). 또한 집을 마련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없는 거지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모습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광문의 성격을 알 수 있다(⑤). 그러나 이 글에 광문의 부지런한 성격(②)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29. 상황의 이해 및 구체적 작품에의 적용 정답 ①

㉠에서 광문은 아이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아 내쫓기고, 다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간 상황에서도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수모를 겪고 있다. 이는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①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노도 잃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적까지 만난 사공의 곤란한 상황도 ㉠과 유사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② 농부의 삶과 애환을 노래하고 있다.

③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④ 현학적인 태도, 허장성세의 세태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⑤ 바람과 구름, 온갖 종류의 매들도 쉬어 넘을 정도로 높은 고개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30.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의 적용 정답 ①

㉡에서 광문이 일하는 약국의 부자가 돈을 도둑맞아 광문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광문은 영문을 모르고 말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①이 적절하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은 벙어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이듯 한다는 뜻으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아무리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③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이르는 말
④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됨을 이르는 말

31. 인물들의 심리 이해 및 적용 정답 ②

㉢의 상황은 광문이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기 위해 재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다. 광문이 싸움판에 끼어들어 땅에 금을 긋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듯한 시늉을 하는 모습은, 싸움을 중재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으므로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일 것이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은 갑자기 거지인 광문이 와서 심각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어이없어하며 웃을 것이다. 따라서 ㉢의 상황에 적절한 '광문'의 표정과 '싸우는 자들'의 표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②이다.

[32~35] 지문 해제

> **과학기술사회학의 특성 및 의의**
> 표준적 과학기술관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과학기술사회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과학기술사회학은 과학기술이 인간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과학기술의 가변성과 국지적인 특수성을 인정한다. 과학기술사회학은 단일적·권위주의적인 과학 질서에서 다원적·민주주의적인 과학 질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32. 정보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내용 추론 정답 ②

마지막 문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사회학에 따르면, 근대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바람직한 유일한 과학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적 과학기술을 사회적 맥락과 연관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사회학의 입장에서 오늘날 과학이 나아갈 방향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길(②)이 되어야 할 것이다.

33. 관점의 이해를 통한 주장의 파악 정답 ⑤

표준적 과학기술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내용 자체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들에 근거한 것(④)이므로 가치중립적(②)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사회적 구조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에 따라 과학기술을 사회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③). 또한 이들은 현재의 과학이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사이비 과학을 계속 제거하다 보면 언젠가는 과학이 완벽해지리라고 믿는다(①). 그러나 과학이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보이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34. 관점의 분석적 이해 및 관련 내용의 적용 정답 ①

과학기술사회학은 표준적 과학기술관에 대해 비판적이다. 따라서 표준적 과학기술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④). 또한 표준적 과학기술관에서 과학기술 엘리트만이 과학을 이해하고 변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비판한다(⑤). 과학기술사회학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과학기술의 가변성과 국지적인 특수성을 인정하며(②), 모든 과학기술이 사회문화적 산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③). 그러나 과학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①은 ㉡과 관련이 없다.

35. 단어의 파생 과정 이해와 적용 정답 ④

ⓐ의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했으므로 '더욱이'로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부사에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④의 '깨끗이'는 형용사 '깨끗하다'에서 어근 '깨끗-'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서 '깨끗이'라는 부사가 된 것이므로 ⓐ와 단어의 파생 과정이 다르다.

[36~40] 작품 해제

> **(가)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작자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태인에서 만년을 보내며 지은 가사로, 자연 속에 묻혀서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며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 주제 : 봄 경치를 즐기는 풍류와 안빈낙도(安貧樂道)

(나) 위백규, 『농가(農歌)』

전 9장으로 이루어진 연시조로서 농촌 생활을 일과의 진행 순서에 따라 노래한 작품이다. 생활 주변에서 제재를 찾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조선 후기 시가의 경향을 보여 준다. 제4장에서는 농민의 고된 노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엿볼 수 있고, 제6장에서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농민의 모습과 소박한 풍취를 느낄 수 있다.

- 주제 : 농사일을 하며 지내는 여유로운 삶

(다) 한림제유, 『한림별곡(翰林別曲)』

한림의 여러 유생들이 지은 최초의 경기체가로,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당시 문인들의 향락적인 생활상이 드러나 있으며, 귀족들의 활력 넘치는 기개와 의식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당대 문장가들의 명문장을 찬양하고 있고, 제8장에서는 상류층의 향락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 주제 : 사대부의 의욕적인 기개와 향락적인 생활상

36. 작품들 간의 공통적인 속성 파악 정답 ①

(가)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는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해 지거든 돌아가자며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신진 사대부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과 향락적인 생활상이 드러나 있다. 세 작품 모두 화자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작품의 공통점은 ①이다.

37. 시적 화자의 태도 이해와 적용 정답 ⑤

(가)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즉, (가)의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장소를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나)의 화자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며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 그에게 농촌은 구체적 삶의 현장인 것이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가)의 화자를 비판한다면, 농촌은 즐기는 대상이 아닌 열심히 일해야 하는 바쁜 생활 터전임을 상기시킬 것이다.

⑤는 황희의 시조로, 봄이 되어 그물을 만들고 밭을 갈아야 하는 등 일이 많아 약초 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상이 드러나 있으므로 (가)의 화자를 비판하기에 적절한 노래이다.

① 윤선도의 '오우가' : 물의 미덕을 찬양함.
② 조식의 시조 :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노래함.
③ 이황의 '도산십이곡' : 옛 성현들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함.
④ 황진이의 시조 :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정한을 노래함.

38. 작품에 형상화된 정경의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가)의 마지막 부분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에서 한가로움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자신 혼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양반들이 모여 시를 짓고 있다는 ⑤는 (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①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에서 흥에 겨워 지저귀는 새를 찾을 수 있다.
②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퓌여 잇고'에서 해가 저무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③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앒픠 두고 /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등을 통해,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곳에 초가집과 정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퓌여 잇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에서 복숭아꽃과 살구꽃, 버드나무와 풀, 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39.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이해 정답 ②

(나)는 햇볕을 쬐며 땀 흘리며 일하다가 해가 지자 돌아가는,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①). 또한 '~ 불 제 ~ 머무는고'와 '~ 돌아올 제 ~재촉하는고' 등의 동일한 통사 구조(③)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로', '돌아가자' 등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④)하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머무는고', '재촉하는고'처럼 '-ㄴ고'의 의문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⑤). 그러나 (나)에서 역설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40.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 ①

〈보기〉는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시하여 독자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①에서 (다)를 감상하면서 그네 타기의 흥취를 느껴 보겠다는 것은 독자가 작품에 나타난 풍류를 수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41~44] 지문 해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장점 및 그 한계

노후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강제적이고 공적인 해결 방식인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장점 및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높은 효율성으로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높은 수익률과 행정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사적 보험보다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41.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②

마지막 문단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보험 회사에 뒤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적 프

로그램이 사적 프로그램보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2.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관련 내용의 적용 정답 ③

'온정적 간섭주의'는 개인에게 노후 준비를 맡겼을 때 부적절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소비자 주권'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자가 모든 경제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ㄱ은 소비자를 경제 행위의 중심에 놓는 관점이다. ㄴ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로 정부의 간섭에 해당한다. ㄷ의 경우도 정부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간섭에 해당한다. ㄹ은 정부의 규제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온정적 간섭주의'와 관련된 것은 ㄴ, ㄷ이고, '소비자 주권'과 관련된 것은 ㄱ, ㄹ이다.

43. 정보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⑤

역선택의 문제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⑤의 사례에서,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44.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내용 추론 정답 ⑤

㉡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공적 프로그램이 사적 보험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명목임금이 상승하여 보험료, 사회보장세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공적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적 보험은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해 보험 혜택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⑤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봉급생활자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 명목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실질임금은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의 형편은 더 나빠지게 된다.

[45~50] 작품 해제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를 몽타주, 의식의 흐름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다. 주인공 구보가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내면 의식이 변화해 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제시된 부분은 구보가 고독을 피하려 경성역 대합실에 왔지만, 사람들에게 인간미가 없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고독을 느끼는 장면이다.

- 주제 :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

45. 소설의 특성 및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즉,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 구보가 경성역에서 겪은 일들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글에 대한 설명으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는 ①이 적절하다.

46. 인물의 면모 및 성격에 대한 이해 정답 ②

구보는 기쁨을 찾기 위해 남대문을 나가 보았으나, 그곳의 사람들에게 고독을 느끼고 약동의 무리가 있는 경성역에 가기로 한다. 그런데 경성역의 사람들은 남을 믿지 않고 인간미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구보는 경성역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 고독을 느낀다. 따라서 구보의 심리가 기쁨을 찾으려는 기대에서 고독을 느끼는 실망으로 변함(②)을 알 수 있다.

47. 작중 상황의 원인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③

구보는 경성역 삼등 대합실에서 옆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결코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병자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간 본래의 온정이 사라진 슬픈 현실을 보고 고독을 느낀다. 결국 구보는 타인들과의 인간적 유대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③) 고독을 느끼게 된 것이다.

48. 서술 방식의 이해 및 구체적 확인 정답 ⑤

〈보기〉는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 ㉡, ㉢, ㉣은 모두 구보가 관찰하는 사물과 대상에 대해 떠오르는 자유로운 생각과 연상을 기술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은 노파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를 떠나는 구보의 행동에 대해 관찰하고 서술한 부분이므로, 의식의 흐름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49. 자료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장면의 적용 정답 ⑤

㉤에서 구보는 병자와 그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 이 조그만 사건에 흥미를 느껴 대학 노트를 펴들고 그 일을 소설로 쓰려고 한다. 이 장면은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설 쓰는 과정 자체를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 미적 자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50. 합성어의 합성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 ⑤

'맥없다'는 '맥이 없다(명사 + 조사 + 동사)'의 형태에서 조사가 생략되어 형성된 합성어이다. '겁(이)나다', '등(을)지다', '본(을)받다', '앞(에)서다'는 모두 '명사 + 조사 + 동사'에서 조사가 생략되어 형성된 합성어이다. 그런데 ⑤의 '얕(게)보다'는 '얕다'와 '보다'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는 과정에서 연결 어미 '-게'가 생략되어 형성된 경우이므로, 합성어의 형성 방법이 '맥없다'와 다르다.